

# 작가란 어떤 존재며 늙어감은 어떤 의미인가

문학의 최종 종착지는 무엇일까. 아니 작가의 최종 글쓰기 지점은 어디일까.

끊임없는 창작 열정으로 주옥같은 작품을 창작해왔던 남도를 대표하는 두 원로 문인이 나란히 장편소설과 시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한승원, 문순태 작가. 두 소설가는 남도 문단을 넘어 한국 문단을 아우르는 창작과 활동으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팔순을 앞둔 두 작가 모두 현재는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에서 소설을 창작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에 두 작가가 창작의 열망과 뿌리를 찾는 여정을 형상화한 작품집을 발간했다. 문순태 작가는 시집 '생오지 생각'을, 한승원 작가는 장편 '도깨비와 춤을' 펴낸 것이다. 서로 다른 장르이지만 작품 속에서 두 문인은 늙어감의 의미와 작가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시'라는 장르를 두 작가가 관심에 두고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한승원 작가는 시인을 서사의 한 축으로 등장시키고, 문순태 작가는 120여 편의 시를 직접 창작한 것이다. 아마도 글을 업으로 삼는 작가의 최종 목적은 자신만의 한편의 시를 쓰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 고대 문학의 기원을 보면 시와 춤과 노래가 결합된 제의적 성격이 강했다. 나중에 소설(novel)이라는 장르가 탄생하지만 문학의 본질은 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승원 작가는 소설 '도깨비와 춤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누어 가진 분신을 두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장흥에 사는 프로작가 한승원과 남해에 사는 아마추어 음유시인 한승원이 그들이다.

(현실의) 한승원 소설가는 '장흥의 한승원'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 작품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공작새 수컷이 암컷들과 세상을 향해 꼬

남도 대표 두 원로 작가 장편소설·시집 발간 '눈길' 한승원 '도깨비와 춤을' - 죽음 가까워진 인간의 성찰과 고뇌 문순태 '생오지 생각' - 인생 내리막길에 느끼는 노년의 회한



소설가 한승원



소설가 문순태

리와 날개를 활짝 펴서 찬란한 무지개빛 어린 문양을 과시할 때 치부인 향문도 노출하듯이 스스로를 결산하면서 '자기 참모습'을 찾는 문학적 여정에 나선다.

소설 속의 두 한승원은 일관성 쌍둥이처럼 닮은꼴이다. 그들 사이의 다른 점은 '남해의 한승원'에게는 아내가 없고, '장흥의 한승원'에게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남해의 한승원'은 '장흥의 한승원'이



다른 얼굴'이다. '장흥의 한승원'에게는 '자존심, 저항의식, 보호본능, 정체성'을, 아내가 먼저 죽어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남해의 한승원'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을 일깨운다. 서로를 거울처럼 되비추는 '장흥의 한승

원'과 '남해의 한승원'은 두 사람이지만 둘 다 참 모습을 지닌 '한승원'으로 수렴된다. 이처럼 소설 '도깨비와 춤을'은 시간의 불가항력에 따라 죽음에 가까워진 인간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버티기 위해 분투하는 숭고한 이야기이다.

한편 나고 자란 고향 '생오지'를 시집 제목으로 내건 문순태 작가의 '생오지 생각'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느끼는 노년의 회한과 애잔한 마음이 담겨 있다.

원래 문순태 작가의 출발은 시인이었다.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소설 '백제의 미소'가 당선돼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 시인으로 등단했다.

"광고 재학 시절 조선대에 근무하던 김현승 선생님께서 시를 배웠다"는 말에서 작家的 시에 대한 사랑을 가늠할 수 있다. 1965년 '현대문학'에 시 추천을 받고 이후 소설가로 전향했지만 문 작가의 내면에는 시에 대한 열망과 감수성이 오롯이 응축돼 있었던 모양이다.

각각의 시에는 작가가 살고 있는 생오지를 중심으로 산골 마을에서의 일상, 어머니의 그리움 등 원초적인 정서가 깃들여 있다. 고인이 된 그의 오랜 친구 송수권 시인은 "문순태의 시는 이 땅의 흙속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다. 그러므로 뿌리 잃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한(恨)이 주요 키워드이며 모티브가 되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시는 한마디로 고향의 연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순태 작가는 "어쩌면 요즈음 나의 시 쓰기는 삶의 마지막 길 찾기에 남은 시간을 위한 삶 즐기기에 모르겠다. 산을 내려가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과 길가의 풀이며 꽃과 나무, 그것들이 갖고 있는 빛깔과 향기, 그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아 충분히 여유를 즐기고 음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브람스 '헝가리 무곡'으로 무대 열어요

다문화 M오케스트라 연주회 14일 광주 서구문화센터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M오케스트라(사진)가 오는 14일 광주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우리 함께 음악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이 단체의 대표이자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인 김유정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먼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으로 문을 연 뒤 레오 들리브 '실비아-피치카토',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 '서곡'으로 무대를 채운

다. 드라마 '명성황후'의 주제곡 '나 거든'을 사토 준코, 고은화, 김혜인의 클라리넷 중주로 선보이고 플루트 중주팀은 프랑수와 조제프 고색의 '탕부랭'을 무대에 올린다.

발라레무용단은 이날 무대에 함께 올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피치카토 폴카'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주제곡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등의 연주에 맞춰 춤사위를 선보인다.

김춘수 단장이 이끄는 에듀콰이어 합창단(옛 광주초등교원합창단)도 초청돼 박지훈이 편곡한 '손뼉을 쳐'와 안현순의 '함께 걷는 길'을 공연한다. 문의 010-3625-511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여성영화제 제작 '돌아가는 길' 제7회 대구여성영화제 폐막작 선정



허지은 감독 작품 '돌아가는 길'

광주여성영화제가 제작한 허지은 감독 연출 영화 '돌아가는 길'이 7회 대구여성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오는 11월1-3일 대구시롯데프리미엄칠곡점에서 열리는 7회 대구여성영화제는 폐막작(3일 오후 7시 30분)으로 '돌아가는 길'과 주영 감독의 '늦은 오후', 김도영 '자유연기'를 상영한다. 허지은 감독이 연출한 단편영화 '돌아가는 길'(24분)은 광주여성영화제가 지난해 진행한 두 번째 이야기 공모전 당선작을 각색해서 제작됐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이 영화는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작으로 처음 공개돼 14회 인천여성영화제에 초청 상영됐다. 대구여성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된 뒤에는 허지은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한편 9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14일부터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열린다. 문의 062-515-656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신덕룡 시인 13일 광주대 명예퇴임식·출판기념회

"환경과 생태시 기반 다양한 평론·작품 성과"

평론가인 신덕룡 시인(광주대 문창과 교수)의 명예퇴임식 및 출판기념회가 오는 13일 오후 4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시인은 30년 넘게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남도의 문학적 토양을 틈살히 하는데 이바지했다. 광주대 출신 제자들이 문단에 등단해 문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특히 문예지 기반이 허약한 지역에 시전 문지 '시와 사람'을 창간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시낭송회 '비타포엠'을 만들어

남도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썼다.

경기도 용인 출신의 신 교수는 광주를 '제 2의 고향'이라 칭하며 늘 호남의 아픈 역사와 현실에 공감했다.

그의 문학적 성과는 환경과 생태시를 기반으로 한 평론과 다양한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다. 90년대 환경과 생태시를 기반으로 한 글을 통해 자본과 산업명명이 지구화한 생명파괴에 주목했다.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문학의 길을 제시했다. 이 같은 활동 결과로 평론 부문에



서 '김달진문학상', '경희문학상', '김준오시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2002년 '시와 시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후 시집 '소리의 감옥', '아름다운 도둑', '하멜서신' 등을 펴내기도 했다.

신 교수는 이번에 명예 퇴임을 맞아 시집 '다섯 손가락이 남습니다'(서정시학)와 에세이집 '하멜의 다락방'(문학들)을 펴냈

다. 시집 '다섯 손가락이 남습니다'는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한편으로는 고고하고 담박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반면 여행에 세이집 '하멜의 다락방'에는 하멜의 흔적을 찾아 스페인에서부터 시작된 여행을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소박한 글이 담겨 있다. 수년 전 강진 병역에서 '하멜'의 흔적을 접한 후 '하멜서신'이라는 시집을 발간 후, 이번에는 '하멜 표류기'에 단단히 필이 꽃힌 상념들을 잔잔한 어조로 풀어냈다.

한편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생, 생각과 대화 동인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명예퇴임식 및 출판기념회는 문인들 축사를 비롯 시낭송, 신 교수의 문학세계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10-7165-935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돌아가는 길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한승연 신현수  
연출 정현수 극본 황숙미

2018.10